

#### 제4항. 반점(,)

1) 복합분에서 이음토가 없이 문자들이 이어질 때 단일문들사이에 친다.

례: 나는 로동자, 너는 농장원.

2) 어떤 문장이나 말마디가 열거되거나 맺음토로 끝났다 하더라도 뒤의 문장이나 말마디와 밀접히 련관되어있을 때에는 그 맺음토의 뒤에 친다.

례: — 왔고나, 왔고나, 혁명이 왔고나.  
— 바람이 세다, 창문을 주의해라.  
— 어제도 좋았고, 오늘도 좋고, 래일은 더욱 좋을 우리 생활!

3) 문장속에서 같은 성분들사이를 갈라주거나 죽 들어 말한 단어들사이를 갈라주기 위해 친다.

례: — 도시와 농촌에서, 일터와 마을에서, 학교와 가정에서 생활은 약동하고있다.  
— 우리는 작품창작에서 당성, 로동계급성, 인민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.  
— 과수원에는 사과, 배, 복숭아 등 과일들이 대단히 많다.

## [참고]

반의어적, 대구적관계에서의 열거는 반점을 차지 않는다.

- 례: - 앉든가 가든가 해라.  
- 가든가 마든가 하는 문제  
- 가느냐 마느냐 빨리 결정하자.  
- 갈가 말가 하는 태도

### 4) 문장에서 부름말, 느낌말의 뒤에 친다.

- 례: - 아바이, 고맙습니다.  
- 과장동지, 오늘 계획을 100%로 수행했습니다.  
- 아, 우리 조국은 얼마나 아름다운가!  
- 옳아, 네 말이 맞았어.

### 5) 제시어뒤에 친다.

- 례: - 혁명적예술인이 되는것, 이것은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을 창조하는 작가, 예술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임무로 된다.  
- 우리 당의 령도밑에 민족간부, 그가운데서도 기술간부가 많이 자랐다.

6) 문장성분의 차례를 바꾸어 한 부분을 특별히 힘주어 나타낼 때에는 그 힘준 말뒤에 친다.

례: - 나가자, 판가리싸움에  
나가자, 유격전으로  
- 그가 왔답니다, 전쟁때 우리 집에 얼마간 묵어갔던 그 군관아저씨가...